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관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연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12월의 초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달만큼 우리의 일상이 많이 분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의 잣대로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롬 3:23~24)

특히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하여금 은총의 기적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크리스마스 찬양은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눅 2:10)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최근 금요찬양집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유희의 한 방편으로 크리스마스를 전락시켜버린 세태에 위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2008년을 결산하고 2009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당회를 통해서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이 확정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세부계획들이 속속 나올 것입니다. 예배 시마다 선포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찬양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 기초를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겨울계절학교와 CMTC(선교훈련) 등은 천국일꾼으로 양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전도자로 나아가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월은 결실을 맺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12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2009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은 본지 5면 참조

오늘, 2009년 교구총회(주일4부예배 후 / 본당)

***모든 성도님들은 지정된 교구좌석에 앉으십시오.**

12월 교회 일정

- 7일(주) 2009년 제2차 CMTC① (찬양예배 후)
재교육위원회의 거음성경학교 교사강습회 (12:40)
- 14일(주) 2009년 제2차 CMTC② (찬양예배 후)
- 17일(수) 총회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9일(금) 성탄기갑 감사음악회(메시아)(금요찬양집회 시)
- 20일(토) 총회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 21일(주) 은퇴자 사상(찬양예배 시) 특별제직회(찬양예배 후)
- 23일(화) 성탄축하 찬양의 밤(제1·3 교육위원회, 19:00)
- 25일(목) 성탄절예배(9:00, 11:00)
- 28일(주) 제6차 학습 및 세례식(찬양예배 시) 공동의회(찬양예배 후)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여호와와의 변론 (미가 6:2)

미가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외쳤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의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었다. 미가의 설교는 자신을 존중하여 여기는 인간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있었던 이사가 선지자의 법정에서 볼 수 있던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는 음성을 잘 알고 있다. (사 1:18) 참으로 회개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법정용어로 전하였다. 우리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살펴보면 회개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호 6:1~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내어놓도록 법정으로 나오라고 부르신다.

법정에서는 증인을 세운다. 재판관들은 증인들의 말을 듣고 증거물들을 검토하면서 시비를 가른다. 미가 선지자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증인으로 산과 작은 산과 땅의 견고한 언덕들을 부르고 있다. (미 6:1~2)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부르고 피고인을 부르는 이유를 주셨다. (렘 5:30~31)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과 변론하기 위함이다. (렘 7:3~4)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계속해서 변론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목을 정하였다. 그들은 순종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나아오라고 부르신다. (호 14:1~2)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관계를 검토하시며 출애굽(출 3:11~12, 4:22)과 가나안 정복(수 23:3,5) 등 그들에게 베푸신 선한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였다. (미 6:4~5)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행함에 평정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다. (미 6:3)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심문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증인들이 세워졌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검토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도울 길을 찾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길을 알려 주신다. (미 6:6~7) 자기 과거를 돌아보며 예식과 전통을 따라야 하는가? (시 51:16~17) 종교인들의 비관적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골 2:8,23)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에 반대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들로 인하여 변명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를 위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피고인에게 진술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다. 과연 성령에서 드러지는 회개제물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이 회개제물로 드러진다면 기뻐할까? 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외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미 6:8)

미가 선지자는 당시 사회의 불의를 지적하였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하다. (롬 5:8~9)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려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신다. (마 5:48) 인자를 사랑하며 언약으로 관계 맺은 자들에게 신실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요일 5:1~2)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은 곧 자신의 모든 의지와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라는 것이다. (갈 2:20)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법정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목을 내어 놓으셨다. 정말로 회개할 수 없는 명백한 죄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주신 주님만 의지하자. 아멘.

THE GRACE OF GOD AND OUR SALVATION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Titus 2:11)

God's grace and our salvation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human happiness and well-being, yet they are sadly the most neglected, ignored, and misinterpreted. The grace of God cannot be found in money, nor can it be had through any means of your own efforts. In other words, you cannot try to do something in order to receive it. You cannot steal it, nor can any measure of your own desire and will attain it. Salvation is a gift only from God that comes through faith.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o this earth so that we can receive His gift of eternal life.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say that they believe in Jesus, but don't even know what it means to believe in Jesus, just like Paul and the Jewish people of his day, who all said that they believed in God but their belief was not real. Are you walking around telling others that you are a Christian because you believe in Jesus, but you really aren't? Paul was so zealous in his religious beliefs that he persecuted Christians. He actually thought salvation could only be received through his Jewish traditions. He even assisted in killing Stephen after his great sermon. After he met Jesus Christ, Paul received God's grace. He understood,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were realized through Jesus Christ." (Jn. 1:17) God's grace comes to all people. His grace approaches everybody, even though no one deserves it. So that we can better appreciate God's grace and our salvation, let us highlight some of its miraculous benefits.

The gift of God's grace includes new birth. Christians are born again. Those who profess Jesus without being born again will not see or enter heaven. Jesus said to Nicodemus,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n. 3:3) Nicodemus was confused and asked Jesus,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can he?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 not be amazed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Jn. 3:4~7) New birth is the act of God that gives eternal life to the one who believes in Christ. As a result, the believer becomes a member of God's family with a new capacity and desire to please God. If you are born again, then you have received God's gift. God sent His only Son to this earth so that humans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salvation. Jesus died on the cross to open the eternal way,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so that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4~16)

The gift of God's grace includes spiritual restoration. Imagine a small child being lost in the middle of nowhere. Unless someone comes to rescue this child, the child will die. It is the same with all of humanity. Without the grace of God, all people will perish eternally. Jesus came to rescue you from certain death,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Sin is part of human nature and it separates us from God. Jesus Christ forgives sin. He

restores our relationship with God. He repairs the spiritual gap between humans and God, so that we can actually communicate with God. When you believe in Jesus, the Holy Spirit touches you and your heart wants to share the gospel, the good news, with others. The Good Shepherd came to this earth to rescue His sheep and restore them back into the fold of God. 1Peter 3:18 says, "For Christ also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just for the unjust, so that He might bring us to God, having been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As you sit here right now, your heart is beating and you are alive, but are you spiritually dead? Jesus came to give you spiritual life. He wants you to become a child of God.

The gift of God's grace includes dramatic changes. 2Corinthians 5:17 say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Becoming a new creature is a big change! Romans 12:1~2 further emphasize this change,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Having your mind transformed and renewed is a big change! If you keep asking God for His gift, He will make you holy and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t. 5:48) Are you saved by grace? Paul explains,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in which you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Among them we too all formerly lived in the lusts of our flesh, indulg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even as the rest.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Eph. 2:1~5) Faith changes everything,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 (Col. 3:4) How wonderful a change!

If you are a person who believes in Christ,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Col. 3:15~17) Jesus came to this earth. As Christmas time approaches, let us reflect on this new beginning of salvation. Think about God's grace. Think about salvation. Think about how this marvelous experience comes only through faith. Jesus is the Savior. He was born in Bethlehem, just as the Old Testament prophesied. (Mic. 5:2) He is the one who can change your life. He is the one who can give you new life. He is the one who can make your life abundant. Please make sure you have this gift. Amen. 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11)



김성관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무시되고 경시되며 잘못 해석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흠칠 수 없을뿐더러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코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바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진실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오직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위대한 설교를 냈었던 스테반을 죽이는 데에도 동조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 다. 그는 "울분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아무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택 가운데 몇 가지만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둬들여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둬들여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둬들여를 체험합니다. 거둬들이지 않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둬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워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怎能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어기지 말라"(요 3:4~7) 새로운 탄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결과 신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거둬들여면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영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4~16)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회복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적 회복을 줍니다.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아이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을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죄는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터 단절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영적 간격을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기쁜 소신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양들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18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혹시 영적으로는 죽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린도후서 5:17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로마서 12:1~2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로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구하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1~5)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이 얼마나 경이로운 변화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영광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5~17)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구원의 길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구원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제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미 5:2)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1. 26.)

사망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1~57)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모든 사람들을 극한의 공포로 몰고 가는 죽음은 인간의 원수이다. (고전 15:26) 그런데 죽음을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죽음은 자연현상이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롬 5:12)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죽음이 더욱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히 9:27)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향해 서 바울은 묻는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이처럼 바울이 죽음 앞에 담대한 이유는 은총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은총의 자녀는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은총의 자녀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죽음을 향해 던진 바울의 질문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자.

구원은 사망을 향하여 묻는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구원이 사망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죄로 인하여 인간을 흠여낸 사망의 사슬을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눅 19:10)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요 11:25)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엡 2:5~6)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힘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엡 2:8)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사망을 향해 담대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릴 때 변화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고전 15:52~53)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막 3:16)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요 3:36)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2)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사망을 향해 외치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천국은 죽음을 향하여 묻는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천국이 죽음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들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다.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릴 정도였다. (행 14:19) 이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로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고후 12:2) 바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벧 1:21) 바울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었다. (벧 1:23)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고후 5:8)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믿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마련하신 천국집이 어디에 무엇이 두렷겠는가! 바울처럼 죽음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천국이 있음을 진실로 믿는가? 그렇다면 사망을 향해 외치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은 죽음을 향하여 묻는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부활이 죽음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라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4)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다. (고전 15:20)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6~18) 현실은 신자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짓누를 것이다. 달콤한 유혹 또는 회유와 압박을 하며 타협을 유도할 것이다. 철저히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제 곧 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요일 3:1~2) 주님이 오실 때 신자들이 누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할 것이다. (롬 8:18)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망을 향해 외치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분명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이다. 그러나 은총의 자녀들 앞에서 사망은 힘을 잃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친히 마련하신 천국의 거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전 15:57) 매순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자. 아멘.

마가복을 강해 47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9:14~29)

를 보았을 때 자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의 기적을 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막 6:13)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탄이 없었다. 제자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또 다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제자들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할 뿐이었다. (막 9:14)

수님이 어더를 향해 가시며 무엇을 하시기 깨닫지 못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은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막 9:19)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 종교, 문화에 섞여 변질되고 말았다. 마치 불에 굶은 제자들의 맥심! 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였듯이 말이다. (민 14:11)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아니다. 믿음의 문제이다.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 복음을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바꾸지 말고, 복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준다. 이때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버지께 들렸다. (막 9:21) 예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는 심한 경련과 함께 거품을 흘렸다. (막 9:20)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구했다. "우리를 불쌍히 여가시 도와 주옵소서" (막 9:22) 이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23) 믿음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내가 믿나니 너의 믿을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막 9:24) 믿음을 구하라는 그 아버지의 간구대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 (막 9:25)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막 9:28~29)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담항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매우 다양한 현실들을 마주 당항한다. 그 도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한다. 이와 같은 일체의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은 내 의지에 따라 생기기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주의 다스리심을 받자. 아멘.

아마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자신만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병 고침을 시도하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참견을 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신기한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그곳은 매우 시끄러웠다. 이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 인사하였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는냐" (막 9:16) 그런데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앙과 세상의 가치를 놓고 변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변론은 신앙에 무익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혀 왜 때 변론을 하게 된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론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이다!

변화산에서의 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기에 예

2009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

2009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

날 짜	행 사 명	날 짜	행 사 명	날 짜	행 사 명
1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1 (목) 4 (주일) 7 (수) 25 (주일)	26 (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학습세례식 (2차) 장애인주일	9 (수)	제70기 교사양성부 개강 (11/29 종강) 제40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11/29 종강)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정기당회 수요성경공부 2학기 개강 (11/25 종강)
2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전반기 증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4 (수) 20 (금) 22 (주일) 25 (수)	5월 3 (주일) 6 (수) 17 (주일) 31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4차) 어린이 · 어버이주일(가족연합예배) 정기당회 전도회장단 영성훈련(7/19 종료) 성령강림주일(오순절)	10월 7 (수) 16 (금) 21 (수) 23 (금) 25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파택장로 (주제발표) 임직예배 (장로/안수집사/권사) 청지기훈련 (3차) 종교개혁주일 학습세례식 (5차)
3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1 (주일) 4 (수) 8 (주일) 11 (수) 22 (주일) 29 (주일)	6월 7 (주일) 10 (수) 14 (주일) 19 (금) 28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계절학교 교사강습회(제1교육위) 정기당회 제직회 청지기훈련 (2차) 학습세례식 (3차)	11월 1 (주일) 4 (수) 13 (금) 15 (주일)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7차) 전도회장단 영성훈련(1/3 종료) 정기당회 찬양의 밤 (금요찬양집회) 추수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 추수감사 특별찬양예배
4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 파택자교육 개강 (9/26 종강) 고난주간 특별세례기도회 6-10(월-금) 8 (수) 10 (금) 12 (주일)	7월 5 (주일) 8 (수)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5차) 맥추감사주일 정기당회	12월 9 (수) 13 (주일) 16 (수) 20 (주일) 24 (목) 25 (금) 27 (주일)	절기구제 (성탄)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은퇴자 시상 임시당회 (예/결산) 특별 제직회 성탄 특별찬양예배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1,3교육위) 성탄절 감사예배 학습세례식 (6차) 공동의회
		8월 5 (수) 23 (주일)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정기당회 학습세례식 (4차)		
		9월 6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6차) 교회설립 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성령의 능력이 예배당에 충만하여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 했을 때,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교회는 한국에서의 '나의 (母) 교회'와 같은 곳으로, 주일에 5회에 걸쳐 대예배가 하나씩 앞에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오전 11시에배 때에는 일본어 동시통역이 시행된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예배 전 찬양이 있으며, 이어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부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정주로 예배가 시작된다. 그 순간, 정당한 성령님의 임재가 3,000여 명의 성도로 가득 찬 예배당 내에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듯 가득 차 오는 것이 느껴진다.

목사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사람을 따르겠는가,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자기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보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여야만 하는 바로 그 때이다."라고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찌르며 압박해 온다. 내 영혼은 격렬하게 요동치며, 깊고 깊은 회개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는 사이, 이렇듯 무거운 죄 짐에 억눌려 있던 나의 짐은 사라져 흠기분해지고, 진정으로 풍성한 자유를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오는 것을 느낀다.

어떻게 한시간이 지나갔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예배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찬양대의 송영과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들려올 때, 나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그 여운을 천천히 음미한다. 자리를 떠나기가 무척이나 아쉽다. 일 분 일 초를 아끼위하며, 예배의 순간 순간들을 모두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 심정에 빨아들일 요량으로 귀를 세우며 들었던, 말 그대로 모든 몸을 주님께 드렸던 정말 감격스러웠던 예배였다.

와타나베 준이치(은퇴장로, 다이파교회)

"와타나베 씨는 일본 동경의 그리스도교 협회 소속(다이파 교회)의 은퇴장로이다. 한국 국토개발원의 초청으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주일에는 빠짐없이 충현교회 3부예배에 참석하였다. 이 글은 충현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신문에 게재한 간증문이다. (일본어 번역은 정창철목사 장로님이 수고하셨다.)"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

마음이 무겁다. 팀원들의 표정도 마찬가지다. 그도 그럴 것이 금요일 200여명 후 3일째 되는 오늘까지 사역지로 이동한 것 외에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갑갑한 심령으로 오후 3시부터 두 조로 나누어 정탐을 겸하여 사역을 시작한 뒤 공원에서 4시 20분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면 참 반갑게 대해주었다. 약한 기량비가 오라카라하는 가운데 정자, 매점, 놀이기구장 등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만 더러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빌립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약속시간이 되어 차로 갔으나 두 분의 집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이내 소나기가 쏟아진다. 15분이 지나도 집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굵은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우산을 들고 찾아 나섰다. 놀이공원을 한 바퀴 돌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근심하면서 차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20미터 전방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 뒤로 공안 복장을 한 사람이 손짓하며 따라온다. '아, 붙잡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그들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인사하며 헤어진다.

뿐만스러운 어투로 두 집사람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에요? 시간을 지켜야지요!" 그들은 흥분된 얼굴로 말하였다. "팀장님! 저희가 돌아오라는 순간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경비 초소로 뛰어들었어요. 좁은 초소에 여자 두 명이 뛰어오라니 경비원은 놀라 눈이 동그렇게 되어 일어났어요. 저희는 전도지와 책침들을 건네주며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기도도 했구요. 찬양도 불렀어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 놀라운 간증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최경하(인수집사, 17교구 3지역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

이번 선교회는 영성심사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이 가는 게 아닌가? 연대행사처럼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이번 예보다부 지체들과 함께 하는 선교에서 내 안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해 이번 선교에 대한 결심을 굳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만큼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동역으로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농아인들의 귀가 되어 그들이 선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솔직히 새벽부터 시작되는 선교일정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운 날씨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기도 기도 만나기 어려운 농아인들..... 무려 나흘이 지나도 농아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였으나,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나를 안타까움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떠나오기에 이를 전 주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농아인이 우리의 속소로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선교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외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유미(성도, 예보다부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14교구 제7지역 서초4구역'이라고 막힘없이 금요 찬양집회 출석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1년도 안 됩니다. 창치기훈련처럼 특별한 행사 때에만 참석하여 출석표를 쓸 때마다 헛갈렸었는데..... 이렇듯 제가 서초4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았었는데,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전 4:2)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충현의 만나>를 가지고 구역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구절을 찾고, 깨달임이 써서 아주 크게 확대 복사를 합니다. 내 나이 또래의 구역식구들이 어두운 조령 아래서도 잘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합니다. 구역식구 모두가 직장생활을 하여 지고는 매우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먼 길 갈 때마다 오히려 기도로 권하며 주시는 권사님, 직장에서 곧바로 오시는 조침님 만나서, 만나서는 자마다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서갑식 집사님, 많은 연세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임경자 집사님, 조용히 우리 구역의 힘이 되는 김임순 집사님, 임집사님의 전도로 구역예배에 합류한 우희주 집사님과 예쁜 딸 서연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우리 구역의 기쁨이 되는 서 집사님의 딸 철승이, 저희 집에서 예배드릴 때면 함께 해 주는 그의 남편 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늦은 8시에 <충현의 만나>를 통해서 읽는 말씀과 나눔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혜 재물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대화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어서 간단한 간식을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배부른 아름다운 손길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맛있는 먹다 보면 저녁 9시를 훌쩍 넘기기가 일수입니다. 비록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모여서 함께 무릎을 마주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신앙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화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역일 모두가 피기를 기도해 봅니다.

전동여(집사, 14교구)

교회소식

별 세 14교구 서초1구역) / 23일 평

3. 김윤기 대표이사(김영민 집사의 부친) - 안숙영 집사의 부친, 15교구 가든교회 / 20일 별세, 24일 장례
 4. 홍용호 성도(김영민 안숙영 집사의 외조부, 7교구, 142구 우성구회) / 20일 별세, 24일 장례
 5. 장영미 성도(김영민 집사의 모친, 16교구 이촌교회) / 22일 별세, 24일 장례
 6. 김진태 씨(홍용호 권사의 모친, 병환으로 수시입학의 장모, 22교구 가든교회) / 20일 별세, 24일 장례

2009년 제2차 CMTC 훈련

(교육과정 : 3주간, 장소 : 갑렬리울)

◆CMTC 선교훈련

시 간	12월 7일(다음 주일)
18:15~19:15	제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제2강 총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12월 14일(주일)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제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제5강 영성기도회

*수강신청 : 훈련 당일 15:00부터, 갈릴리움 입구에서 접수

◆CMTC 팀장훈련 : 12월 12일(금)~12월 13일(토), 충현기도원

편집국 자원봉사자 모집

부 문 : <주간총헌> 교정 및 교열
시 간 : 화요일(10:00~15:00), 수요일(13:00~17:00)
문 의 : 편집국(#353)

CMTC 직무훈련

일 시 : 11월 30일(오늘) 18:15 ~ 19:50
장 소 : 갈릴리홀

예배위원회 봉사자 영성훈련

일 시 : 12월 2일(화) 18:30 장 소 : 갈릴
교 육 : 예배부-예배위원실, 안내부-베드
성례부-본당12호, 헌금부-갈릴

감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정기 감사

제출기간 : 2008년 11월 30일까지
 감사장소 : 감사위원회(제1교육관 503호)
 대상부서 : 찬양위원회 소속 전 찬양대.

전도회 회장단 영성훈련

일시 및 장소: 12월 7일(주일)~2월 8일(주일) 매주일 15:10, 제1교육관 407호
대상: 남녀 전도회장, 부회장, 전도부장, 전도위원회 실행위원

집사회 임역원 영성훈련

일 시 : 12월 3일(수) 20:00
장 소 : 본당 112호

대응·분석결과

집사의 속외종회
일 시 : 12월 7일(주일) 15:2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대 상 : 안수집사 전원(필참)

12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연도	연월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인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2	7	노영환	임무천	황희만	이상성	장철범	문효식	홍병희	함병연
	14	박철구	김환기	신선길	이성심	이대식	최경하	최영자	유호순
	21	권병옥	정재경	김광남	이계인	김귀석	김진천	장혜진	전경금
	28	최지은	안동현	원용철	윤석빈	이달옥	노영환	이인숙	김금숙

새벽기도회 (12/1~12/7)

	12/1 (월)	12/2 (화)	12/3 (수)	12/4 (목)	12/5 (금)	12/6 (토)	12/7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주병창	이희석/이인광	하종철/박용기	정종신/강희창	이성진/표왕렬	이재영/이혜수	정민권/황순란
성 교 분 류	막 9:33-37	골 3:21-23	골 3:1-6	골 3:7-16	골 3:17-31	골 3:5:1-9	골 3:5:10-15

예배 달달 (12/3~12/7)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2/3	수요 I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사 9:2-7) 김성광 목사	유재진	이영화	은 세상이 어두워 김광하나 (호산나 찬양대)
12/3	수요 II	여호와와 은혜의 해 (사 61:1-11) 최진철 목사	정민권	민정송	내 주 하나님 뵈고 난 은혜의 (실로암 찬양대)
12/5	금식찬양	김성환 목사	탁정현	예루살렘 찬양회 / 바이올린 이은희 / 소프라노 김소연	
12/7	주일 I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 (딤후 2:11) 박준식 목사	최진철	노영환	(예배 전 찬양)
12/7	주일 II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 (딤후 2:11) 김익현 목사	김진호	임보람	비바람이 찬양회 / 소프라노 장영현(임바람 찬양대 솔로리스트)
12/7	주일 III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 (딤후 2:11) 김성광 목사	장민호	황찬만	놀람마 주님의 큰 은혜와 / 가을엔만 장영현(전인연주자)
12/7	주일 IV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 (딤후 2:11) 정홍선 목사	김완수	이상석	온 코소서 임바눔의 / 바이올린 장영현(전인연주자)
12/7	주일 V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 (딤후 2:11) 김근영 목사	이혜영	정경철	천사 찬송하기를 / 별빛 여섯 주창단(지도: 김재진)
12/9	주요와찬양	예수님은 복음이요 생명이시다 (마 11:25-36) 김성환 목사	이재형	문종진	소망보 주창단 / 마드리 여창단 / 169곡

예배 및 진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요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한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찬양예배	저녁 7:00	본 당
비전전도대회	7월 1일 새벽 6:00	본 당

기독교원진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차	점 10:30	금요일차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 시무자로

장정민	이 훈	김종구	이
김정남	제주시청	유민준	25
김정남	아름다운	임우진	25
김정남	가톨릭	김정환	25
김정남	15교구	조보람	25
박덕남	화남	김우형	25
배준식	11교구	김홍규	25
박철우	김영달	이성호	25
김정남	제주시청	신상수	25
김정남	아름다운	박재현	25
김정남	가톨릭	김정환	25
유승민	장신원	안석원	25
김종현	15교구	김정환	25
김정남	아름다운	김정환	25
정은배	서석익	구재환	25
유승대	박성대	김기성	25
김정남	아름다운	김정환	25
김정남	아름다운	오승도	25
김정남	15교구	김정환	25
이	장성	장정원	25
김정남	조준민	이호민	25
김정남	박성식	류기원	25
김정남	박종용	박종용	25

■ **임의문서** 기 선 과[illegible]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부 · 들

구분	시 가	자 스
----	-----	-----

영 아 부	1 오전 9:00 2 오전 11:5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0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니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237호
조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10호
중 등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전 2:00	제2교육관 4층
회 차 보	(토) 오전 5:2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 가	자 스
----	-----	-----

장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온
사랑부	오후 11:00	복귀관 지하
예배다부	오전 9:00(하계) 오후 1:00(상선)	제2교육관
탁아부	(주) 오전 8:30~오전 6:00 (수) 오전 6:30~오후 9:00	선교관 1층
가족양육부	오후 12:15	메디나 1부
내국인교회	오전 11:00	아멘
현여민이집	주진교육	제1교육관 107호